

# 학종 전형 확대·영어 절대평가 전환...독서·동아리 활동 필수

〈학생부 종합전형〉

## 2018 대입전형 계획 들여다보니

### 국어·수학 변별력 커져...내신 중요성 높아져 사교육 우려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7일 발표한 '201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의 특징은 ▲수시 모집 및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종합전형 확대 ▲영어 절대평가 전환 등 크게 2가지가 핵심이다.

◇정시로 대학가는 시대는 끝? = 현재 고 2학생들이 치르게 될 2018학년도 대입에서 수시모집으로 뽑는 비율은 역대 최고치다.

특히 서울대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대학의 수시모집 선발 비율이 크게 늘어난 점은 학생들이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다.

서울대의 경우 전체 선발 인원(3363명)의 79.0%(2660명)를 수시모집으로 뽑는다. 고려대(서울)는 3472명(모집인원의 84.9%), 연세대(서울) 2614명(72.0%), 성균관대 2921명(80.7%), 서강대 1324명(76.2%), 이화여대 2399명(73.8%) 등도 신입생 10명 중 8~9명을 수시모집으로만 선발하는 것이다. 수시 모집의 경우 내신성적(교과)과 비교과활동 등 학생부종합형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만큼 학생들은 평소 학생부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학생부 종합전형 확대, '내신 사교육' 우려? = 수시모집 전형 중 학생부 종합전형 비중이 대폭 늘

어난 점도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다.

학생부 전형은 학생부 점수 중 교과(내신)성적이 절반 이상 차지하는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나뉘는데 매년 확대되고 있다.

2018학년도에 경우 수시모집 정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23.6%, 2017학년도(20.3%)보다 3.3%포인트, 2016학년도(18.5%)에 견줘 5.1%포인트 증가했다. 인원 수를 놓고 보면 1만 5600명(2016학년도) 늘어났다. 특히 학생들이 선호하는 수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다.

고려대가 논술전형을 폐지하면서 고교추천 II 전형을 신설,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하며 연세대로 학생부교과전형을 폐지하고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대입에서 내신 뿐 아니라 독서 활동, 동아리·봉사활동, 수상경력 등 비교과 활동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로 해석할만하다. 일각에서는 자칫 '쓸만한'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교육 우려도 나올만하다.

◇영어 절대평가 전환, 반영 비율 쟁점야=2018

## ■ 학생부 전형 유형

구분	전형유형	2018학년도	2017학년도	2016학년도
수시	학생부(교과)	140,935명(40.0%)	141,292명(39.7%)	140,181명(38.4%)
	학생부(종합)	83,231명(23.6%)	72,101명(20.3%)	67,631명(18.5%)
정시	학생부(교과)	491명(0.1%)	437명(0.1%)	434명(0.1%)
	학생부(종합)	435명(0.1%)	671명(0.2%)	1,412명(0.4%)
합계		225,092명(63.9%)	214,501명(60.3%)	209,658명(57.4%)

학년도부터 수능 영어영역은 절대평가로 전환, 대 학별로 다양하게 반영한다.

우선, 수시모집에서는 113개, 정시모집에서는 39개 학교가 최저학력기준으로 활용한다.

또 정시모집에서 188개 학교가 비율로 반영하고 19개 학교는 가점이나 감점을 주는 방식으로 반영기로 했다. 최저학력기준의 경우 대부분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등 여러 영역 등급의 합이 일정 기준 이내여야 한다는 식으로 설정됐다.

예를 들어 수시모집에서 경희대는 인문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중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4이내, 자연과학계열은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5이내여야 한다. 고려대는 인문사회계열은 국,수,영,탐구 중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6이내, 자연과학계열은 7이내여야 한다.

이밖에도 서강대는 4개 영역 중 3과목이 각 2등급 이내, 서울대는 3개 영역 이상이 2등급 이내여야 한다. 연세대는 인문사회와 자연과학계열 모두 영어 2등급을 최저학력기준으로 제시했다.

정시모집에서는 비율 반영과 가점 혹은 감점을 부여하는 식으로도 활용된다. 비율로 반영하는 188개 대학 중 일부 학교는 영어 반영 비율을 2017학

도보다 낮췄다.

건국대는 35%에서 15%로, 경희대는 25%에서 15%로, 연세대는 28.6%에서 16.7%로 영어 반영 비율이 낮아진다. 대신 건국대는 탐구 영역 반영 비율을 10%에서 25%로, 경희대는 15%에서 25%로 늘렸다.

가점 부여 방식으로 반영하는 학교는 서강대와 성균관대, 중앙대 등 12곳이다. 감점 방식은 고려대와 서울대, 아주대, 충남대 등 7개교에서 시행된다. 고려대는 1등급은 감점을 하지 않고 2등급은 1점을, 나머지 등급은 등급 간 2점씩 감점하는 방식이다. 서울대는 1등급은 감점이 없고 2등급 이하부터 등급당 0.5점씩 감점한다.

장광재 광주 송덕고 진로진학상담교사는 "현 고 2학생들의 경우 수시 전형을 통해 대학에 진학하는 방향으로 입시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특히 상위권 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중심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채우 독서활동 등 비교과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시 전문 기관들도 학생부 중심 전형 비중 증가, 수능 영어 절대평가 등이 2018학년도 대입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꼼꼼한 관리를 주문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 수시모집 증감률

구분	수시모집	
	모집인원(명)	비율(%)
2018학년도	259,673	73.7
2017학년도	248,669	69.9
2016학년도	243,748	66.7

## ■ 대학별 수시 모집인원

구분	대학명	수시	
		일반전형	특별전형
국공립	목포대	778	520
	목포해양대	-	544
	서울대	1,739	921
	순천대	796	579
	전남대	2,325	966
	광주과학기술원	155	25
사립대	고려대(서울)	1,207	2,265
	광주대	1,275	362
	광주여대	834	67
	동신대	1,375	138
	서강대	1,177	147
	성균관대	2,424	497
	연세대(서울)	683	1,931
	이화여대	1,637	762
	조선대	2,612	1,034
	중앙대	2,150	1,302
한국외국어대	560	1,621	
한양대(서울)	399	1,792	
호남대	923	664	
광주교대	145	90	



호남대 '튼튼 먹거리 탐험대' 발대 호남대 식품영양학과는 27일 오후 호남대 IT스퀘어 강당에서 '튼튼 먹거리 탐험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호남대가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튼튼먹거리 탐험대는 특수 제작된 9.5t 푸드트럭을 이용해 초·중학교를 돌며 영양교육과 요리 실습 등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광주 누리예산 2개월분 땀질 지원

### 교육청 예산 전용·시 전출금 유보...유정심 시의원 대책위 구성 제안

2개월분 광주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이 지원된다.

운정현 광주시장과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 장휘구 광주시교육감 등은 27일 시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시행키로 결정했다.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다른 예산 일부를 돌려 쓰는 '전용(轉用)' 방식으로 4~5월분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12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광주시도 4~5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12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

료의 경우 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으면서 광주시가 우선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는 또 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미면성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4월 이후부터 시교육청으로 보내야 할 법정 전출금에서 그만큼 집행을 유보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만큼 향후 교육청과의 갈등도 우려된다. 한편, 유정심 광주시의회 의원은 이날 시의회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통해 광주시·시교육청·시의회·국회의원 등이 참여하는 '누리과정 예산 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전남의 미래와 희망

광주일보가 함께합니다

중앙만 바라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지역발전은 지방신문이 선도합니다.

서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중앙지는 누구편입니까?

지방지는 우리 지역을 대변합니다.  
지방지에 힘을 실어주세요!

한국지방신문협회

광주일보 강원일보 경남신문 경인일보 대전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 전북일보 제주일보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45    달뜨기 --:--  
해질 19:16    달지기 10:08

#### 오후에 화창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에 그치겠다.

#### ◇지역별 날씨 (℃)

광주	비온뒤 맑	11/19	보성	비온뒤 맑	11/16
목포	비온뒤 맑	12/16	순천	비온뒤 맑	13/17
여수	비온뒤 맑	12/16	영광	비온뒤 맑	11/16
나주	비온뒤 맑	11/18	진도	비온뒤 맑	11/17
완도	비온뒤 맑	11/18	진주	비온뒤 맑	11/19
구례	비온뒤 맑	12/18	군산	비온뒤 맑	10/17
강진	비온뒤 맑	12/18	남원	비온뒤 맑	10/18
해남	비온뒤 맑	12/18	흑산도	비온뒤 맑	10/15
장성	비온뒤 맑	11/18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5	북서~북	0.5~1.0
	먼바다	북서~북	1.0~2.0	북서~북	0.5~1.5
남해서부	앞바다	북~북동	1.0~2.5	북서~북	0.5~1.5
	먼바다(동)	북~북동	2.0~3.0	북서~북	1.5~2.5
	먼바다(서)	북~북동	2.0~3.0	북서~북	1.5~2.5

####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5:48	11:03
	17:52	23:05
여수	00:21	06:34
	12:31	18:27

#### ◇주간 날씨

29(금)	30(토)	5/1(일)	2(월)	3(화)	4(수)	5(목)
10/23	11/25	11/26	13/23	14/19	11/23	12/24

#### ◇생활지수

- 주요:
- 보통:
- 낮음:

미세먼지지수